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 신나는 현장

7월 29일 오전 9시 조계사 앞. 관광버스를 타는 아이를 걱정스럽게 쳐다보는 엄마가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잘 다녀와"라며 작별인사를 한다. 아이는 엄마에게 "예"하고 외치며 버스에 오른다. 엄마는 걱정이 되는 듯 버스 밖에서 서성거리며 아이를 쳐다보지만, 아이는 배웅 나온 엄마가 안중에도 없다. 캠프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고, 신나게 물놀이도 하며 재미있는 볼거리에 마음이 들떠있기 때문이다.



◇"부다피아 캠프 너무 재미있어요" 관음사 대웅전에서 기념촬영을 하고있는 어린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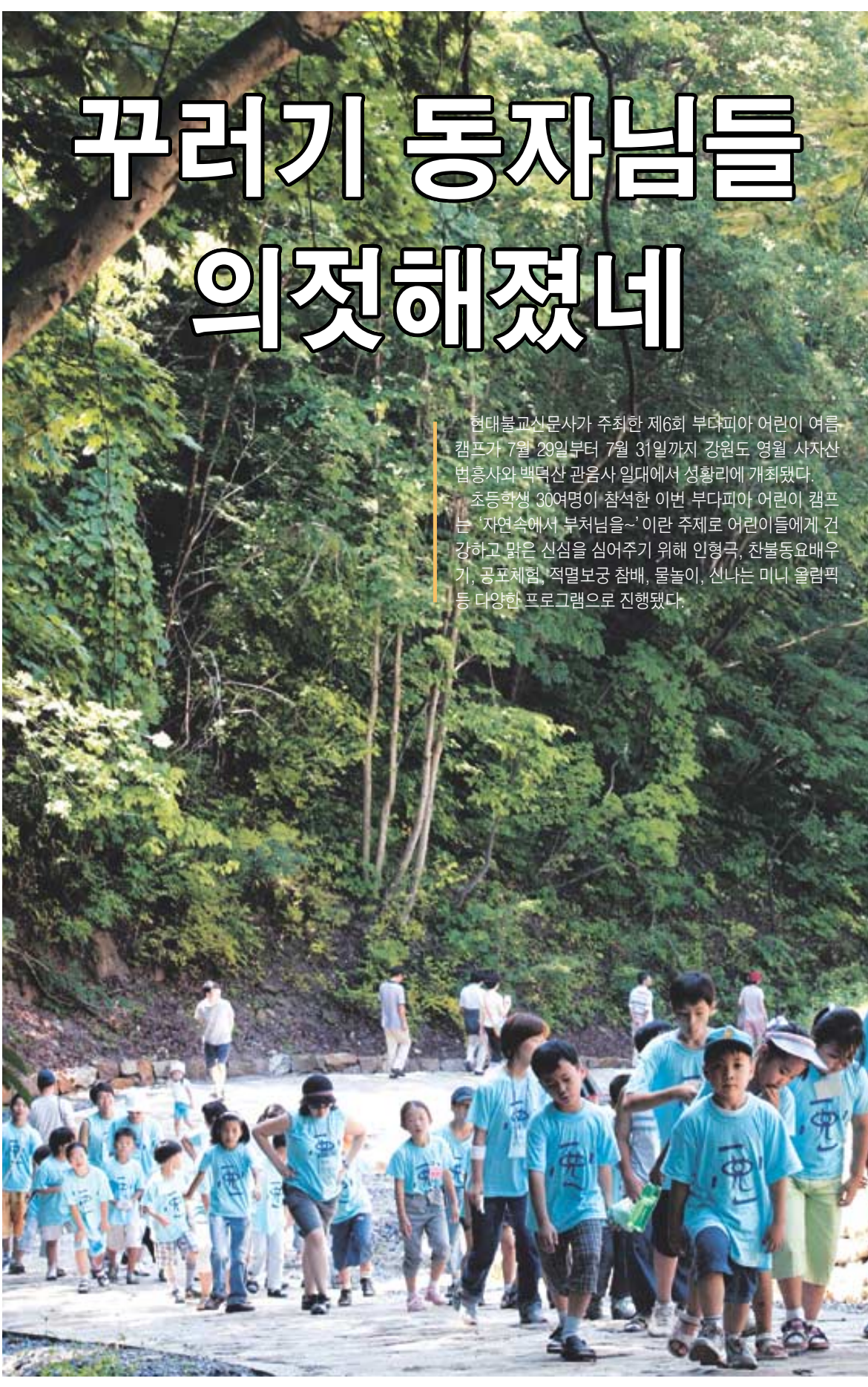
**친구 사귀느라 엄마 배웅은 뒷전**  
버스로 약 4시간쯤 달려 영월 백담산 관음사에 도착했다. 아이들은 토끼, 코끼리 등 4개반으로 갈라져 방 배정을 받았고, 짐을 풀 아이들은 각자 싸온 점심을 친구들과 함께 먹었다. 잠시 후 선생님이 나누어준 푸른색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은 이방 저방을 뛰어다니며 장난을 쳤다. 마치 몇해 사귄 친구처럼. 입제식을 위해 대웅전으로 향하는 아이들. 천불이 모셔진 관음사 대웅전에 들어서자 마자 질문을 쏟아낸다.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선생님 법당에 부처님이 왜 이렇게 많아요."  
"부처님 이름이 뭐예요"  
아이들은 저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상단의 부처님을 쳐다보고 있었다. 각 반 담임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질문에 대답하느라 정신이 없다.  
삼귀의를 시작으로 진행된 입제식에서 아이들은 스님의 법문을 듣고 법당예절을 배웠다. 아이들은 어느새 장난가 가득한 꾸러기에서 의젓한 선재동자로 변해가고 있었다.  
이어 진행된 인양 한마음선원 어린이 지도교사들의 인형극 시간. 아이들은 현승스님으로부터 마음의 주인공이 되라는 법문을 들은 뒤, '자성본래불'이라는 인형극을 감상했다. 아이들은 주인공 봉이의 대사에 깔깔대고 웃기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저녁식사 이후 아이들은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윤미경, 김희진, 유봉재 선생으로부터 찬불가와 율동을 배웠다.

찬불가, 율동에 즐겁 들썩들썩



◇선생님 쳐다보라, 찬불가 가사보라, 바쁘다 바빠.  
아이들은 목이 터지려 찬불가를 따라 불렀고, 선생님들의 율동을 보며 따라하기 바쁘다. 각반 지도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불가와 율동을 따라한다.  
해는 서서히 백담산을 넘어가고 어느덧



꾸러기 동자님들 의젓해졌네

현대불교신문사가 주최한 제6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 캠프가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원도 영월 사자산 법흥사와 백담산 관음사 일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초등학생 30여명이 참석한 이번 부다피아 어린이 캠프는 '자연속에서 부처님을~'이란 주제로 어린이들에게 건강하고 맑은 심신을 심어주기 위해 인형극, 찬불동요배우기, 공포체험, 적멸보궁 참배, 물놀이, 신나는 미니 올림픽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오정주 - 다시 참석 못하지만 오래 기억에 남을거예요. 고태인 - 별동별에 소원, 부처님 공부잘하게 해주세요

**서울 중동초등학교 6학년 오정주(사진 오른쪽)**  
2박 3일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가 버린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중학교에 입학해 다시 부다피아 캠프에 참석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캠프가 너무 재미있어 오래 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 가면 엄마 말씀 잘 듣고 남은 방학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울 흥인초등학교 2학년 고태인(사진 왼쪽)**  
선생님이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해서 하늘을 쳐다보았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별자리도 보고 별동별도 보았어요. 선생님들이 별동별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한가지 소원을 빌었어요. 부처님 공부 잘하게 해 주시고 키 크게 해 달라고요. 집에 있을 때는 물랐는데 엄마 아빠가 무척 보고 싶어요.

칠혹같은 아들이 주변을 뒤덮었다. 아이들이 가장 기다리던 공포체험시간은 각 조별로 두 개의 후레쉬를 가지고 사찰 인근에 4개 지점을 통과해 다시 사찰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아이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지점은 바로 2번 지점. 산속을 올라 가야만 하고 귀신이 나오는 공포요지가 있다는 이야기를 선생



님들로부터 들었기 때문 이다. 2번 지점에서 저학년 아이들은 갑자기 튀어나온 휴지 귀신을 보고 놀래고 학년 언니오빠들에게 인제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3번지점에서는 선생님의 로부터 재미있는 별 이야기를 들었다. 하늘에 떠 있는 북두칠성을 찾아보고 별을 보며 각자 한가지씩 소원을 빌기도 했다.

물놀이에 마냥 즐거운 천진동자들

다음날 오전 10시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의 하나인 법흥사를 참배한 아이들. 법당에 왜 부처님이 안계시냐는 질문을 연신 쏟아낸다. 선생님께서도 법흥사 유래와 적멸보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아이들은 신기한 듯 법당 안을 기웃기웃 거리며 적멸보궁을 둘러보았다.  
신나는 물놀이 시간. 선생님들이 나누어준 물총으로 서로 쏘아가며 장난을 친다. 몇몇 아이들은 이미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좋아한다. 각 반 담임선생님도 아이들과 함께 물속에 들어가 물장구를 치며 신난다. 물놀이에 흥분해 있는 모습에는 천진불의 해맑은 미소가 녹아 있었다.  
저녁 7시. 모닥불을 피워놓고 각 반별 장기자랑이 시작됐다. 아이들은 반별로 준비한 장기를 선보이며 연신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간간히 터지는 불꽃 쪽쪽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아우성을 쳤다.

마지막날 아침. 재미있는 미니올림픽과 회향식을 끝낸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는 막을 내렸다. 돌아오는 차 안 피곤에 지친 선재동자들은 단잠에 빠졌다. 마치 엄마 품에 새끼새끼 잠들어 있는 아이처럼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글=김두식 기자, 사진=박재환 기자



현 시대의 병은 어디에서 왔느냐?

천지기운이 돌아가는 법칙을 알아야 세상의 시대 변화를 알겠으니...  
오랜세월 산사에서 토굴을 짓고 살면서 동양철학, 운기학(運氣學), 민간 약초만 연구하여온 삼정스님 시대가 변하면 병도 변하고 그시대에 따라 먹는 음식도 약도 변해가 된다고 한다. 현대의 병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왔느냐?  
공기, 수질, 농약, 중금속오염 등 각가지 공해와 오염의 독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온 인류가 자연의 법칙을 거역한 죄로 예전에 없던 각가지 중병을 앓으며 죽어가고 있다. 이 가공할 죽음의 질병들 앞에 우리 인간은 완전 무력하다. 옛날 의서에도 세상이 변하는대로 약을 쓰라고 했다. 지금은 화(火)의 기운이 성한 시기다. <음양오행의 화(火)>  
모든게 불 세상이다. 신경성 질환, 당뇨, 혈압, 암 등 각종 장기의 염증 등 전체가 화에서 일어난 병이니 불을 끄려면 자연의 이치상 물을 부어 불을 끄는 이치와 같으니 오염의 독을 해독하고 나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켜 스스로 병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정스님은 우리 인체의 신진대사를 촉진, 기혈(氣血)이 원만히 행기(行氣), 활혈(活血)하고 정심(正心), 삼합일이 되어야 건강한 정신, 건강한육체를 가지게 된다하여 삼정단이라 이름을 붙여 각가지 병들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하고 신체의 리듬이 깨져 온갖 성인병으로 몸이 쇠약하여 고생하시는 분을위해 삼정스님은 우리 나라 깊은 산속에서 자생하는 석남엽, 구지뽕나무 등 각가지 열매나 뿌리를 어렵게 법제과정을 거친 그 결실을 불자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인병의 신호한 三淨丹(삼정단)**

특히

- 가슴 위가 답답하고 머리가 자주 어지러운 분, 빈혈, 저혈압, 뇌기능강화
- 얼굴에 핏기가 없고 이유없이 항상 피곤한 분
- 신허로오는 요통, 신장기능 저하증, 소변이 잦으면서 시원하지 않는 분
- 각종 부인병, 손발이 저리고, 냉한 분, 불임증, 산후병, 갱년기 장애
- 뼈가 약하며 각종 신경통, 요통, 골다공증, 관절염, 디스크
- 각종 신경성질환, 간기능저하증, 간염, 간경화

※ 편두통, 기관지천식, 중풍, 당뇨, 암 등 각종 성인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개별 상담해 드립니다.

상담문의 : 053-652-3300